

임용단기 합격 후기

경기 역사 윤재현 선생님

과목명 (역사) | 스터디 여부 (Y) | 단권화 여부 (Y)

<교육학>

1-4월 : 교육학 강사의 핵심기본 자료를 구하여 회독, 이해하는데 집중하고자 자료 내용을 따라쓰면서 암기
 5-6월 : 전화스터디를 통해 각 이론의 특징과 내용을 간단하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암기 인출
 7-8월 : 전화스터디를 지속+모의고사를 풀기 시작
 9-11월 : 전화스터디를 지속하였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범위를 넓게 잡아 빠르게 돌리는 것에 중점을 둬+모의고사
 전화스터디를 통해 반복적으로 암기한 내용을 인출함으로써 강제성이 부여되어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음. 그리고 상대
 방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는 자극제가 되어 개인적으로 효과가 좋았다
 고 생각이 듬

<전공>

1-2월: 김종권 선생님의 기본 강의를 듣는데 집중하였음, 기본강의를 듣고 해당 범위를 남은 일주일 동안 개론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집중하였음
 3-4월: 김종권 선생님의 전공 개론서 강독 강의를 듣고 1,2월과 마찬가지로 개론서 회독, 그리고 김종권 선생님의
 1,2월 강의 교재를 바탕으로 해당 교재에 단권화 작업을 함께 돌입. 교과서 사료를 문제로 내고 푸는 짝스터디 주 1
 회 병행
 5-6월: 본격적인 암기를 시작, 김종권 선생님의 기본책(앞서 단권화 시킨 것)을 암기하고 이해가 가지않거나 기억이
 안나는 부분을 위주로 개론서를 다시 찾아서 공부함. 그리고 김종권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의를 같이 듣고 해당 문제
 와 주변 관련 지식에 대해 짝스터디를 하며 인출 확인, 주말에는 짝스터디 선생님과 만나 교과서 속의 중요 내용과

개론서에 나와있지 않은 주요한 내용, 키워드를 문제로 내고 푸는 스터디 병행

7-8월: 김종권 선생님의 모의고사 강의를 들음(프리패스를 신청하였기에 작년강의와 올해 강의 모두 들음), 모의고사에 나온 사료, 자료 그리고 답 등을 정확하게 외우고 인출하는 스터디를 병행, 역시 전화스터디를 활용하여 이동하는 시간을 줄였음. 매주 모의고사 4회분(작년2회 올해2회)의 문제와 내용을 암기하여 인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본기와 심화지식을 모두 갖출 수 있게 되었음.

9-11월: 김종권 선생님의 모의고사 강의 들음, 위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와 올해 문제를 모두 풀고 해당 사료와 자료 관련 개론서 내용 등을 인출하는 스터디 병행, 이때는 해당 내용 뿐만 아니라 관련 주제도 함께 물어보도록 하여 개론서 내용 중 암기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다시 암기하는 데 집중하였음. 기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권화한 기본서 책을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모의고사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였음.

10월 정도 부터는 교육학과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 시간과 조건을 유사하게 두고 풀도록 노력하였음

7-11월 모의고사를 풀고 해당 내용을 암기, 인출하는 스터디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듦.

<2차 시험>

12월: 시험이 끝나고 1주일 뒤부터 2차 스터디를 시작. 스터디원 4명에서 2차 문제를 만들고 연습하였음. 집단토론과 면접보다는 수업실연을 중심으로 연습. 주3회 하루에 1회씩 스터디를 하였음.

1월: 3명에서 스터디 실시, 중, 고등학교 교과서의 모든 범위를 2번씩 돌렸음. 월~토 주 6회 스터디를 실시하였으며 오전, 오후 하루에 2회씩 수업실연 실시, 수업실연 후에는 면접 스터디 실시하고 마지막에는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나와있는 경기정책을 암기하고 인출하는 스터디도 함께 병행

집단토론의 경우 3~4번 정도 스터디를 하였으며 다른 스터디의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모의로 연습해보았음.

집단토론의 기초, 마무리 발언은 미리 생각하고 암기해놓는 것을 추천.

- 후배 예비선생님들을 위한 학습팁

슬럼프 극복 하는 방법

작년에 소수점 차로 탈락하여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시기에 유튜브를 활용하여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과 관련한 다양한 영상들을 보았음. 영상들을 보면서 영상 속 다양한 극복 방법들을 적용시키도록 노력.

주1회 정도 쉬는 날을 정하여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에 대한 생각을 잊는 날을 만들었음

수험생활에 도움이 된 팁

팁이라기보다는 앞서 합격 수기에 적은 짝스터디(전화 인출 스터디)가 정말 도움이 되었음.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스터디원과 전화스터디를 하면서 가끔 수다도 떠는 시간을 가져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음. 그리고 주말에 만나 교과서 스터디를 하면서 바람도 쐬고 커피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음.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생각을 하지않으려고 노력하고 교사가 된 미래의 모습,교사가 되면 해보고 싶은 수업 모형이나 방법 등을 상상하면서 동기부여 하도록 노력하였음.

시험 당일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팁

시험 날 일찍 도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9시험의 경우 시험날 폭설이 내렸고 그로인해 교통상황이 좋지 못하여 넉넉하게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시간이 임박하게 도착했습니다.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7시반정도에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일찍도착하면 시험장에 가서 수다떨지 말고 본인만의 단권화 노트를 읽으세요! 집중이 어렵더라도 계속 읽고 보면서 긴장을 푸세요 !

그리고 시험문제를 풀고 있으면서 저의 경우는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괜찮아.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순간 최선을 다하자."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랄게요.

- 작성해주신 합격수기는 2020학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선생님들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